

원주 벨리파크 그랜드 오픈 홍보 '할러윈 나오라쇼' 10월 개최



1 원주 소금산
출렁다리
2 원창묵 원주시장
3 원주 댄싱카니발



3

출렁다리로 유명한 간현관광지 소금산 벨리파크의 그랜드 오픈을 홍보하기 위해 할러윈 축제와 야간 경관 쇼가 결합한 특별한 이벤트가 마련된다.

원주시는 9월 개장한 '나오라쇼'(Night of Light Show)를 세계적인 축제인 할러윈 축제와 연계한 '간현관광지 할러윈 나오라쇼'를 오는 10월 30일 개최한다.

소금산 출렁다리 명성을 이어갈 야간 관광 코스인 '나오라쇼'는 미디어 파사드와 경관 조명, 음악분수, 레이저쇼 등으로 시민과 관광객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 미디어 파사드는 가로 250m, 높이 70m의 소금산 자연 암벽을 활용한 영상이 펼쳐진다.

할러윈 나오라쇼가 열리는 10월 말이면 소금산 벨리파크 대부분 관광시설이 준공된다. 기존 출렁다리 외에 또 다른 출렁다리가 설치되며, 하늘 정원과 데크 산책로, 잔도, 전망대, 유리 다리 등을 즐길 수 있다.

할러윈 나오라쇼에서는 어린이 할러윈 패션쇼를 비롯해 할러윈 미술쇼, 할러윈 댄스공연, 할러윈 코스튬 퍼레이드, 나오라쇼 시연, 걷기 축제 등이 다양하게 마련된다. 걷기축제를 즐기면서 출렁다리~데크산책로~잔도~전망대 등 주요 관광시설을 둘러볼 수 있다. 사전 신청자 및 현장 접수를 통해 어린이 할러윈 복장 패션쇼가 진행된다.

할러윈 댄스공연은 전문 댄스팀의 실감 나는 좀비 댄스 공연과 댄싱카니발 수상팀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할러윈 코스튬 퍼레이드는 전문 분장팀과 관람객이 함께 야간 경관 조명을 배경으로 퍼레이드를 한다.

상설행사로 귀신·좀비 등 할러윈 분장을 한 운영진이 포토존 및 행사장 곳곳에서 관람객과 함께 사진 촬영을 한다. 할러윈 분장 체험, 잭오랜턴(호박 등) 만들기 등 체험 부스도 운영할 계획이다.

원주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 이상일 경우 무대 행사를 제외한 할러윈 거리만 조성하고 방역 수칙을 철저히 이행하면서 진행할 계획이다.

원창묵 원주시장은 "연내 벨리파크가 그랜드 오픈하면 다양한 시설과 야간에 펼칠 아름다운 '나오라쇼'를 통해 관광객의 발길을 사로잡아 하루 이상 머물도록 할 것"이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글로벌 관광지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특별한 감동과 힐링이 함께 하는 곳

원주 소금산 그랜드 벨리

원주 간현관광지가 그랜드 벨리로 새롭게 변모합니다.
낮과 밤이 즐겁고
특별한 감동과 힐링이 공존하는 이곳 원주



소금산 출렁다리, 음악분수

주간코스

케이블카-출렁다리-하늘정원-데크산책로-소금잔도-스카이다워-소금산출렁다리-에스컬레이터

야간코스 '나오라(Night Of Light)쇼'

에스컬레이터-소금산출렁다리-미디어파사드-음악분수-야간경관